

우리나라 사망원인 제1위로서의

죽음에 이르는 병

뇌졸중은 단일질환으로서는 우리나라 국민의 사망원인 중 제 1위를 차지하고 있다. 사망원인 통계에 의하면 1990년도 한해동안에만 약 26,000명이 뇌졸중으로 사망했으며, 특히 이러한 숫자는 사망원인 제 2위에 교통사고에 의한 사망자수의 약 2배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 죽음에 이르는 병으로는 단연 유품을 차지하고 있다.(도표 1) 특히 이러한 숫자는 최근 10여년 동안의 통계를 보면 특별히 줄어드는 양상을 보이지 않아 의학의 발달로 진단 및 치료방법이 개선되었다고는 하나 뇌졸중의 발병률을 감소시키는 데에 있어서는 특별한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듯이 보인다.

더우기 최근 노인인구의 증가 추세과 더불어 뇌졸중 환자의 수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이에 대한 시급한 대책이 절실히 요구된다.

뇌졸중의 예방

이와같이 뇌졸중에 의한 사망이 많고 또 그 사망율이 의학기술의 발달에도 불구하고 줄어들지 않는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인가? 뇌졸중이란 뇌혈관의 이상에 의해 발생되는 뇌의 질환을 일컫는 말로서 크게 뇌출혈과 뇌경색증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인간의 뇌는 한번 손상을 받으면 재생이 불가능하므로 뇌졸중은 일단 발병하면 완치가 어렵다. 물론 뇌졸중의 크기나 정도가 그리 심하지 않아 정상으로 회복되는 경우도 있으나 대부분의 환자들은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얼마간의 장애가 남는 것이 보통이다. 더우기 뇌졸중이 심한 경우에는 발병 직후 사

망하거나 심한 후유증으로 인해 남은 여생동안 타인의 간병을 필요로 하는 경우도 허다하며, 또한 다행히 뇌졸중으로부터 잘 회복이 되었다 하더라도 다시 재발할 위험성이 상당히 높다.

따라서 다른 질환들에서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뇌졸중의 치료중에서 예방은 매우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단지 의사들의 노력만으로 이루어 지는 것이 아니고 범국민적으로 뇌졸중의 예방, 나아가서는 건강에 대한 의식의 변화가 함께 할 때 비로소 뇌졸중의 발병률을 줄일 수 있

향을 제시해 주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고혈압-뇌졸중의 가장 중요한 원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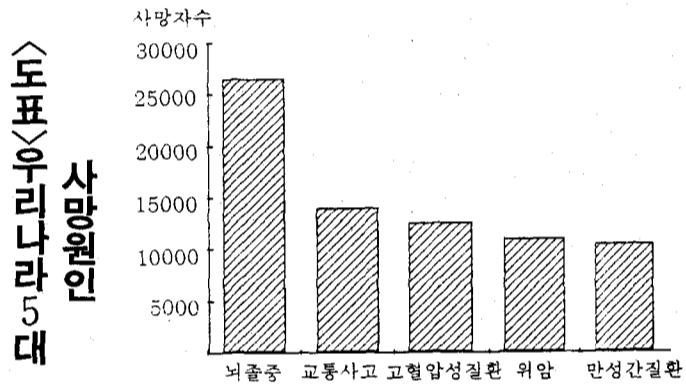
우리나라에 뇌졸중이 많은 이유를 정확히 알 수는 없으나 고혈압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만은 분명하다. 따라서 고혈압이 있는 환자들을 찾아내어 그 혈압을 잘 조절하는 것이 뇌졸중의 예방에 첫걸음이 된다 할 수 있다. 그러나 고혈압이란 항상 혈압이 높은 것이 아니고 초기에는 특정하는 시기에

금이라도 이상이 발견된 사람들은 즉시 병원을 방문하여 정밀 검진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치료를 거부하는 사람들

병원에 뇌졸중으로 입원하는 환자들을 보면서 안타깝게 느끼는 점은 이들중 많은 환자들이 자신의 혈압이 높다는 것을 이미 오래전에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방치 해 두었다는 점이다. 병원에서 정기적으로 검진을 받고 지속적으로 약을 복용해온 환자는 극소수에

年, 26,000명 사망 단일질환중 사망원인 최고 혈압관리, 금연으로 위험인자 제거해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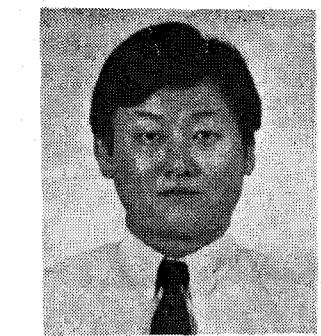
것이다. 다행히 대부분의 뇌졸중은 고혈압, 당뇨, 심장질환 등의 원인에 의해 발생되며, 이러한 질환들을 잘 조절함으로서 뇌졸중의 발병률을 막을 수 있다.

미국의 통계에 의하면 고혈압 환자의 혈압을 잘 조절할 수 있게 된 후, 뇌졸중의 발병률이 이전에 비해 약 40% 이상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성공사례는 결코 남의 나라 일만은 아니며 뇌졸중의 감소를 위해 우리 모두 노력해야 할 하나의 방

따라 정상혈압을 보일 수도 있으므로 어쩌다 한두번 혈압을 재는 것 만으로는 고혈압을 진단하기 어렵다.

더우기 고혈압의 무서운 점은 평소에는 아무런 증상을 일으키지 않는다는 것이며, 그에 따라 특별히 세심한 관심을 갖지 않는 한 이러한 질환을 갖고 있을지도 모르거나 혹은 잊어버리고 사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혈압에 대해서는 항상 관심을 가지고 정기적으로 체크를 받아보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조

불구하고 대부분 인근 약국에서 임의로 약을 구입하여 복용하거나 그나마도 가끔 머리가 아플때나 신체상태가 좋지 않다고 느낄때만 복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고혈압과 같은 질환들은 완치된다고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일단 혈압이 높다는 것이 밝혀지면 증상이 있거나 없거나 평생동안 꾸준히 치료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약을 복용하기를 싫어하며 평생 약을 복용하는 말을 들으면 마치 죽을 병에라도 걸린 것처럼 느끼고 병원에도 몇번 다니다가 그만 오지 않는 경우가 많다. 효과가 분명치 않은 보약, 생약, 건강식품등은 비싼 값을 지불하면서 아무 이상이 없을 때에도 마구 잡이로 복용하는 반면에 실제로 자신의 질병에 중요하고 그 효과도 입증된 약제는 복용을 거부하는 것이다. 얼마전인가, 당뇨병에 걸린 환자가 특수처리한 소금을 과다 복용하여



손영호

<연세의대 교수>

사망한 웃지도 울지도 못할 일이 발생되었다는 보도를 읽은 적이 있다. 언제까지 이와 같이 어리석은 일들이 되풀이될지 걱정 스럽다.

건강을 유지하기

몇년 전쯤인가 TV에서 민간 요법에 대해 소개를 하면서 지금은 이름도 잘 기억나지 않는 어떤 약초를 한번만 복용하면 평생 중풍을 예방할 수 있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다. 얼마나 꿈같은 이야기인가. 실제로 그렇다면 노벨상을 열번을 수상하고도 남을 만한 위대한 발견이 될 것이다. 그런 허황된 말을 매스컴에서까지 아무 여과 없이 공공연하게 발표하는 것도 문제이지만 더큰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는 것이다. 민간 요법의 효과를 부정하려고 하는 것은 결코 아니지만 보약이나 건강식품등은 어디까지나 보조적인 치료방법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이고 그로 인해 주된 치료를 망각해서는 안된다. 건강을 유지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보약이나 건강식품으로만 유지되는 것은 결코 아니며, 본인의 건강에 대한 꾸준한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 규칙적이고 적절한 운동, 음주 및 흡연의 자제, 지속적인 건강에 대한 관심등 어느 하나 꾸준히 행하기에 쉬운일은 없다. 그러나 언제까지 꿈속의 불노초를 찾아 건강을 담보로 도박을 할 것인가? 빨리 각성하여 좀더 확실한 방법으로 건강을 보장 받아야 할 것이다.

당뇨병성망막증

진보된 현대의학의 발달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완치가 되지 못하는 난치병중의 하나로 알려져 있습니다. 눈에는 우리가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 공급하기 위해 수많은 미소혈관이 분포되어 있으니 다. 그러나 당뇨병이나 고혈압등에 의하여 이들 미소혈관에 병변이 발생되면 다시 정상회복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므로 망막증이 발생하기 이전에 예방을 취하거나 초기에 발견하여 치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므로 당뇨병환자는 혈당관리, 고혈압 환자는 혈압관리가 매우 중요한 동시에 각종의 혈관합병증을 예방하기 위해 혈관보호제를 투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혈당이나 혈압관리가 잘되고 있는 환자도 병력에 따라 망막증의 발병률이 증가되므로 실명의 원인이 되는 망막증의 예방 및 치료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당뇨병! 왜! 후루다랜을 복용하는가?

망막증에 대한 후루다랜의 약효입증!

후루다랜[®]은 현재 국내에서 시판되는 약물중 당뇨병성 망막증에 대해 임상효과가 입증된 유일한 약물입니다.

최근 당뇨병 및 고혈압의 혈관합병증 치료제로 유럽에서 각광을 받은 후루다랜의 당뇨병성 망막증에 대한 효능을 평가하고자 국내8개 의과대학 부속병원 안과학교실에서 Multi Center Study를 12개월간 실시후 종합평가의 결과 후루다랜은 당뇨병성 망막증에 대해 약80%이상이 호전 또는 안정되는 양호한 성적을 얻었으며 또한 내약성도 매우 우수한 약물이라고 보고 했습니다.

망막증의 초기단계에서 후루다랜을 투여하면 더욱 좋은 효과를 보실 수 있으므로 치료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외에도 후루다랜은 당뇨병성 백내장, 신경증 및 신증등의 당뇨병 관련합병증에 대해서도 개선효과를 나타낸 바 있으며, 당뇨병 환자의 미소혈관 합병증을 치료관리하는데 전반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약물입니다.

당뇨병과 함께 아래 사용을 하여 보내주시면 됩니다.
1. 당뇨병 환자에게 당뇨병 관리에 대한 협조를 보내주세요.
2. 당뇨병 환자에게 당뇨병 관리에 대한 협조를 보내주세요.
3. 당뇨병 환자에게 당뇨병 관리에 대한 협조를 보내주세요.
4. 당뇨병 환자에게 당뇨병 관리에 대한 협조를 보내주세요.
5. 당뇨병 환자에게 당뇨병 관리에 대한 협조를 보내주세요.
6. 당뇨병 환자에게 당뇨병 관리에 대한 협조를 보내주세요.
7. 당뇨병 환자에게 당뇨병 관리에 대한 협조를 보내주세요.
8. 당뇨병 환자에게 당뇨병 관리에 대한 협조를 보내주세요.
9. 당뇨병 환자에게 당뇨병 관리에 대한 협조를 보내주세요.
10. 당뇨병 환자에게 당뇨병 관리에 대한 협조를 보내주세요.